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닐까요?



오 명 돈 / 서울대 의대 교수

“몇주전에 위험한

성관계를 가졌는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에이즈에 걸린 겁니까?”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데, 제가 에이즈에 걸린 게 아닐까요?”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으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전화로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무슨 증상이 있으면 에이즈로 진단할 수 있는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나는 “증상으로 진단하려 하지 말고,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대답합니다.

에이즈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목이 붓고 아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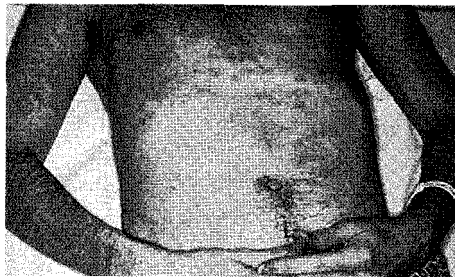
며, 온 몸이 쭈시는데, 한마디로 감기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에이즈바이러스에 걸려 나타난 “초기 증상”을 환자들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 흔합니다. 또 이런 특징은 모든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게 아니며, 에이즈바이러스가 침입하더라도 “초기 증상”이 전혀 없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기 증상”

액 검사를 권하는 이유입니다.

어제 저녁에 위험한 성관계를 가졌는데 오늘 당장 에이즈에 걸렸는지 검사해 달라며 찾아온 환자를 볼 때는 무척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3-6개월이 지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혈액 검사는 에이즈바이러스 자체(적균)를 검사하는

게 아니라, 침입한 바이러스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인체가 만드는 항체(아균)를 체크하는 검사인데, 이 항체가 나타나는데 3-6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에게는 ‘내가 죽을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3-6개월간을 기다리는 게 정신적으로 매우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감염 여부를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검사법은 항체 검사입니다.

“제가 에이즈에 걸린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가 에이즈의 제 몇 기에 와 있느냐?”, “제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미 에이즈라



▲피부발진



▲구강 백반증

은 치료하지 않더라도 한달정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증상만 가지고 에이즈 감염을 초기에 진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가 혈

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에 나는 '에이즈는 어떤 암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병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초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는 길게는 10년 동안 아무런 탈이 없이 지냅니다. 이런 무증상 기간이 지나가면 비로소 에이즈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을 "후기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염된 후 수년이 지난 다음부터 나타나는 "후기 증상"은 대상 포진, 결핵, 이구창(입 속에 하얀 백태가 끼고, 음식을 삼킬 때 목이 아픔), 뉴모시스티스 폐렴(마른기침과 열이 나고, 서서히 숨이 가빠짐), 기생충에 의한 만성 설사 등과 같은 감염병이 흔한 원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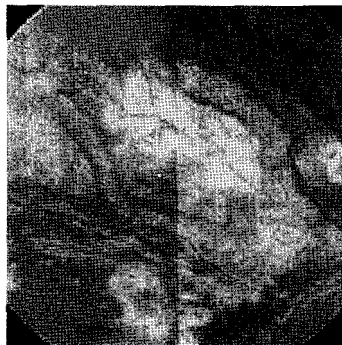
이런 "후기 증상"이 생기면 환자들은 '아이쿠, 이제 내가 죽을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후기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가령, 결핵은 결핵약을 쓰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은 환자에게 생긴 결핵보다 치료가 더 잘 됩니다. 아구창도 곰팡이 치료제를 쓰면 1주일 이내에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지포자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지 못하

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일에 어떤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뉴모시스티스 폐렴에 걸리기 쉬운 상태로 진행하였다면, 의사는 이 환자에게 폐렴예방약을 처방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뉴모시스티스 폐렴을 예방하는데 쓰는 약은 하루에 한알만 먹으면 되고, 약값도 하루 35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CMV는 망막염을 일으켜 시력을 떨어트리



▲지속성 전신성 임파선종



▲CMV에 의한 망막염

면서도 눈에는 아무런 증상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면역 상태가 CMV 망막염이 발생할 정도로 약해진 환자는 눈에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안

과 검진을 자주 받아야 합니다.

최선의 치료는 예방입니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나 현재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 환자들이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면역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후기 증상"이 나타난 다음에야 치료를 시작하면 환자가 지불해야 할 육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도 매우 커집니다. 가령 뉴모시스티스 폐렴에 걸린 환자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며, 회복되기까지는 적어도 2주이상이나 걸리게 됩니다. CMV 망막염에 걸린 환자는 치료를 받더라도 시력을 잃는 수가 있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분명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대 의학은 에이즈바이러스를 죽이고 면역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 상태가 떨어진 환자가 "후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에이즈 환자는 암 환자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오지 않는 환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A